

“세월호 특별법 제정 대승적 화합을”

조계·천태종 세월호법 호소문... 5대 종교 기도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과 천태종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5대 종단 단체들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세월호 단식농성장을 방문한데 이어 8월 31일 긴급호소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자승 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아픔이었으며,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는 소중한 약속”이라며 “진실 규명과 국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진지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승 스님은 또 “유가족과 함께하겠다는 국민의 거룩한 마음을 믿고 짐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도 9월 1일 호소문을 통해 정치권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춘광 스님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는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 국민



자승 스님



춘광 스님

국회·유가족·국민 “대화로 짐 나누자”
실천승가회 등 5대 종교 기도회
국가 안전시스템 전면 개정 촉구

의 뜻이고 정치권의 약속”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고, 온 국민의 아픔을 담보로 극한 대립구도를 연출하고 있다”고 했다. 춘광 스님은 “정치권이 스스로 합의를 깨고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며 국민은 또 한 번 좌절하고 통탄하고 있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의 신성한 의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며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5대 종단 단체들도 세월호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과 기도회를 진행했다. 실천불교불교, 가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퇴위 스님(사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5대 종교인들은 9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중에도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톨릭,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5대 종단 종교인협의회’는 9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천도교한울연대 등으로 기도회에는 실천승가회 대표 퇴위 스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공동위원장 정호 스님을 비롯한 100여 대중이 참가했다.

이날 기도회는 서울 종각에서의 문화제로 시작했다. 우중에도 5대 종교인들은 추모음악을 함께 부르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종각부터 광화문까지 노란우산과 피켓을 들고 행진을 진행했다.

광화문 광장의 기도회에서는 천도교 의식을 시작으로 개신교 기도 및 설교, 불교의 반야심경 봉독 및 관음경근 등 기도, 가톨릭, 원불교의 의식 등이 진행됐으며 끝으로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호소문 31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7대종교, 희망·치유의 화합축전 연다

종교문화축제, 9월 13일 서울 청계광장서

제18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가 9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자승)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이 참여한다. 올해는 ‘너, 나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종교 체험관, 종교문화사진전, 콘서트 등이 개최된다.

또한 각 종단의 특색을 담은 축하공연도 준비돼 축제 흥을 더할 예정이다.

저녁 6시부터 열리는 희망콘서트에는 종교지도자 7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계층 2백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콘서트에는 여성성직자 모임 ‘삼소회’, 레인보우다문화 합창단, 퓨전국악 ‘하나연’, 아가펠라 ‘원더풀’, 샌드 애니메이션, 세인트폴 발레단, 비보이 ‘다스트포워’ 그리고 가수 ‘레인보우’가 출연한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이번 축제에서는 올 한해 우리사회 곳곳에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로를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전세계 유일 무이한 종단연합축제는 상징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어울림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배현진 기자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 특별 강연

진흥원, 17일 다보법당서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하버드의대)는 불교의 마음챙김에 근거한 불안과 공황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학자다. 1978년 이래 명상과 마음챙김 원리를 심리 치료에 통합시켜왔다. 현재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임상심리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02)707-1072 이나은 기자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사진)가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강연이 열린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2014년 ‘다원문화의 달’을 기념해 9월 17일 BBS 3층 다보법당에서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를 초청해 ‘마음챙김, 자기연민의 힘’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연다.

“전통사찰 도난 화재 예방에 만전을”

자승 스님, 강신명 경찰청장 예방서 강조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이 9월 1일 예방한 자리에서 전통사찰 도난과 화재예방 등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며 임기 내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축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전통사찰 도난과 화재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경성실장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과 국회 정각회의원들의 좋은 말씀이 청장 취임하는데 큰 도움이

이 됐다”며 “야당 정각회 의원들에게 신경 써준 원학 스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가족이 모두 봉은사 신도인 강 청장은 역대 경찰청장 중 가장 빨리 청문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승 스님은 이날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많다”며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면 새로 전각을 지어도 전통은 소실된다. 방화로 인한 화재가 없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강신명 청장에게 전통사찰 도난 및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허위 날조, 좌시 않겠다”

前총무원장 인공 스님 성명 발표

태고종 분규사태가 심화되는 가운데 태고종 前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자신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킨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공 스님은 9월 1일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징계로 승려신분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도산 스님은 퇴출위기에 몰려자 수하들을 몰고 종정실에 난입해 시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종정 스님을 감금, 위협해 불문서에 날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 스님은 “봉원사 관련 종단명의 부채문제, 태백 관음사 등기 이전 승인문제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표적징계를 단행한 초심원 징계도 원천 무

효다”고 주장했다.

인공 스님이 주장한 내역은 봉원사 관련 종단 명의 부채문제에서 2010년 종단의 은행 대출금을 봉원사로 채무를 전환할 당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당시 총무원장 인공, 봉원사 주지 일운, 화광씨엔씨대표 신경순 등 세명이 연명으로 확인서를 만들어 낸 점과, 2006년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종단명의 은행 대출 15억 중 신경순 화광씨엔씨대표가 7억 7천을 사용하고, 7억 3천을 운산 스님이 가져간 것은 개인간 일로 관련 없다는 점 등이다. 또 태백 관음사 등기 이전은 지방종회 결의 및 총무원장과 신도회장 요청에 의해 명의만 사단법인에서 ‘한국불교태고종관음사’로 이전한 것으로 등기 이전 등이 합법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노덕현 기자

빈곤층 보듬는 무차대회 열린다

조계종 자성과쇄선경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9월 17일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2014년 무차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무차대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단체 회원, 쪽방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는 ‘이웃을 부처님으로’를 주제로 한 추모의 장과 ‘이들도 함께 살아요’를 주제로 한 어울림의 장 등 중 2부로 마련된다. 노덕현 기자

한인지도자 무교육과정
한성도교자 무교육과정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 교육과정

2014년 9월 20일(토) ~ 10월 18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스님은 누구나 신청가능

자세한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maum.org 참조
Tel. 031-470-3200, 3196 (매주 월요일 휴무)

괴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 염불 수행

근·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의 한 분으로 추앙 받는 선화(宣化) 상인의 대표적인 염불 법문집

선화 상인 염불 법문

서방극락이 그대의 집

정원규·이정희 옮김 | 변형 신국판 288쪽 | 12,800원

경전과 다양한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염불 법문의 정수를 콕 집어 설명한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염불이 삶과 죽음의 고통바다를 건너는 이치임을 깨닫게 합니다.

참되게 염불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보살이 감응하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반드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來生)이 먼저 올지는 누구도 모른다

빠져린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필독서!

죽음수업

김영로 편저 | 변형 신국판 348쪽 | 15,000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감동과 치유의 책

“필자도 2010년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눈물이 나지만 대신에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